

---

# ‘시천주’와 ‘불연기연’의 도덕교육적 시사점 연구: ‘도덕과(道徳科) 교육과정’의 목표와 원리를 중심으로

김민재 (한국교원대학교, 부교수)

## 〈목 차〉

- I. 머리말
- II. 시천주와 ‘도덕교육의 목표’
- III. 불연기연과 ‘가치관계 확장법’
- IV. 맺음말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수운 최제우가 창시한 동학사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학교 도덕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울’을 지구의 생명체계이자 우주의 질서체계로 바라보고, 이를 전제로 ‘시천주’에 대해 나-한울의 일원적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도덕적 주체로서의 인간을 모시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도덕교육의 목표라는 측면에 비추어 ‘시천주’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시사점의 첫 번째는, 도덕과 역량 내지는 우리가 맺는 가치관계의 시작이 바로 ‘나’라는 사실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이 시민 사회, 국가, 지구 등과 같은 대상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직관적이고 체험적인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 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불연기연’에 대해 나-한울의 관계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시천주의 존재론적 정당화 과정이자, 나와 한울이 다르지 않다는 진리를 자각한 도덕적 주체가 세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관한 인식론적 설명 방식이라고 규정하였다. 도덕교육의 내용구성 원리라는 측면에 비추어 ‘불연기연’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시사점의

첫 번째는, '가치관계 확장법'의 제Ⅳ영역에 해당하는 '자연·초월과의 관계' 영역의 성격을 한층 분명하게 함으로써, 이 영역을 학교 도덕교육에서 가르쳐야 하는 타당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초월이라는 영역과 관계를 맺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다름 아닌 '도덕적 주체로서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는 것이다.

**주제어:** 동학, 시천주, 불연기연, 도덕교육, 가치관계 확장법

## I. 머리말

본 연구의 목적은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 1824~1864)가 창시한 동학(東學) 사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학교 도덕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우리 고유의 사상에 기초한 '전통도덕교육론'의 정립 필요성과 가능성 모색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논자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첫 번째는, 최제우가 보여주었던 시대의식이 인간소외 현상이 만연한 현대에도 대단히 유의미하고,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가치 학습에 초점을 맞춘 학교 도덕교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 데, 이러한 부분이 그동안 간과되었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를 돌아보면, 개인에서부터 세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갈등들로 인해 소통과 화합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갈등으로 인한 대립과 분열은 때로는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고 생태계의 중요성까지 깡그리 무시하는 현상을 유발한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상대방과 충돌하는 이념·종교·인종 등의 차이겠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의 탐욕과 무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sup>1</sup> 이 지점에서 최제우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① 또한 최근에 이르러 세상 사람들이 '자기만을 생각하고 위하느라[各自爲心]' 천리(天理)를 따르지 않고 천명(天命)도 돌아보지 않으므로, 마음이 항상 두려워서 지향해야 할

1. 김용휘, 『우리 학문으로서의 동학』 책세상, 2012a, 69~71쪽.

곳을 알지 못하였다.<sup>2</sup>

② 가련하다, 이 세상 사람. '각자위심'하단 말가? 한울님을 공경하며, 한울님을 따르소서. 아무리 이 세상이 어지럽고 각박하다(濇漶) 하더라도 그 근본은 잊지 마소.<sup>3</sup>

위의 인용문들에서 등장하는 '각자위심'이란 자기만을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 다른 말로 '이기심(利己心)'이다. 이 용어는 '나-너'의 통합(通)은 배제한 채 분리(離)에 천착하는 분별 지향적 경향의 현대 사회에서 수없이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이 근원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잘 보여준다.<sup>4</sup> 후술하겠지만, 최제우는 당대에 발생했던 대내외 혼란의 원인이 이 각자위심에 있다고 단언함과 동시에, 내면에 한울을 모시고 있는 그 누구라도 평등하고 존귀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곧 혼란 해결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내용은 학생들로 하여금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개인이 시민 사회와 국가, 지구 공동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sup>5</sup>를 고민하도록 유도하는 학교 도덕교육, 즉 도덕과(道徳科) 교육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터인데, 동학과 도덕교육을 구체적으로 연결한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sup>6</sup>

2. 『東經大全』「布徳門」: 又此挽近以來, 一世之人, 各自爲心, 不順天理, 不顧天命, 心常悚然, 莫知所向矣; 본 연구에서는 『동경대전』의 국역본으로, 김용휘, 『최제우의 철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2b 및 윤석산 역주, 『동경대전』, 모시는 사람들, 2014 등을 포함해 몇 종을 참조하였다.

3. 『용담유사』「권학가」: 가련한 세상스람 ○ 각자위심하단 말가 경년순턴 흐엿스라 ○ 효박헌 이 세상의 불망기본 흐엿스라; 본 연구에서는 『용담유사』의 국역본으로, 양윤석 역주, 『용담유사』, 모시는 사람들, 2013을 참조하였다.

4. 한자경, 「각자위심에서 일원일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68집,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6, 8, 10~11쪽.

5. 교육부, 『2015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2015, 5쪽.

6. 동학을 교육적인 측면으로 해석한 연구물은 적지 않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장열이(『동학 시천주 사상의 교육적 함의』, 『교육사상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교육사상학회, 2007a; 『동학 '동귀일체' 통합사상의 교육적 함의』, 『교육철학』 제32집, 한국교육철학회, 2007b)는 동학의 시천주 사상이 자아 각성-인격 형성-수행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유의미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고, 동귀일체(同歸一體) 사상에서 나타나는 통합적 성격이 생명존중이나 상생의 교육과도 연결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정경정(『동학의 종교 경험과 마음 살림의 자기교육』, 『교육철학연구』 제34집, 한국교육철학회, 2005; 『민주 사회를 위한 시민교육과 한국적 인문학』, 『Oughtopia』 제32권 제1호,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7a; 『뇌과학과 동학의 마음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55권, 한국종교교육학회, 2017b)은 최제우가 경험한 종교 체험이 전일체적 세계관의 자각 및 마음 살림의 자기교육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고, 동학사상이 시민교육과 한국적 인문학 교육의 정립·발전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논의하였으며, 동학의 마음교육에 대한 이돈화(李敦化, 1884~1950)식 해석이 현대의 뇌과학의 어떠한 점이 같고 다른지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물들은 일반교육적인 차원에서 동학을 다루었을 뿐, 이러한 내용들

다음으로 문제의식의 두 번째는, 동학사상을 소개하는 고등학교 도덕과 교과서, 즉 『윤리와 사상』에서 이 사상에 대한 오해의 소지 내지는 비균질성 문제가 발견된다는 것이다. 현행 『윤리와 사상』 검정 교과서는 총 5종으로, “근대 격변기의 상황에 대처해 나타난 한국 전통윤리사상들의 다양한 대응 노력을 탐구하여 그 의의와 한계를 설명할 수”<sup>7</sup> 있다는 『2015 도덕과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근거해, 모두 동학사상을 주요한 내용 요소로 수록하고 있다. 동학사상에 대해 『윤리와 사상』 교과서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용어들은 보국안민(輔國安民), 시천주(侍天主), 사인여천(事人如天), 인내천(人乃天), 후천개벽(後天開闢) 등인데, 5종 가운데 2종만 인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최제우가 제창한 동학은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輔國安民).”라는 가치를 내걸면서 출발하였고, 백성에게 ‘새로운 세상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後天開闢] 희망을 심어 주었다. 특히 “사람은 모두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侍天主].”, “사람을 하늘처럼 섬겨라[事人如天].”, “사람이 곧 하늘이다[人乃天].”라는 동학의 가르침은 인간 존엄 사상과 평등 의식을 고취하였다.<sup>8</sup>

② 동학은 서학에 대응하는 입장을 견지하며 모든 사람에게 한울님의 지기(至氣)가 내재되어 있어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 사상을 제시했다. 이러한 사상은 ‘나의 마음이 곧 너의 마음[吾心卽汝心]’이라는 생각과 사람 섬기기를 하늘과 같이 하라[事人如天]는 가르침으로 심화되었다. (중략) 이를 통해 평등과 인도주의 및 사해동포주의를 현실에서 실현하고자 하였으며, 그들이 강조한 수양법은 성(誠), 경(敬), 신(信)이다. 또한

이 학교 도덕교육에 어떤 시사점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내세우는 문제의식과는 차이가 있다.

물론 도덕교육학계에서도 동학을 전혀 연구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배문규(「고등학교 윤리 교과서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서술된 동학윤리사상 검토」, 『윤리교육연구』 제31집, 한국윤리교육학회, 2013)는 이전 교육과정들에서 발견된 고등학교 『윤리』 『윤리와 사상』 교과서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동학을 어떻게 서술하였는지 비판적인 시각으로 검토하였고, 김대훈(「동학에 나타난 고유사상 연구」, 『윤리교육연구』 제37집, 한국윤리교육학회, 2015)은 동학의 사상적 기저가 유불도 삼교(三敎)가 아닌 단군신화와 풍류도에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진평수(「도덕교육과 동학의 윤리관」, 『동학학보』 제47호, 동학학회, 2018)는 동학사상의 보편적 윤리관이 민족 통합, 지구촌 평화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과목의 내용에 비추어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도 이상의 연구물들의 연장선에 있는 한편, 동학사상이 학교 도덕교육의 ‘뼈대’가 되는 도덕과 교육과정(목표 및 내용구성의 원리)에 있어 어떠한 시사점을 가지는지 논의하고, 나아가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의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초석을 다지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7. 교육부, 앞의 책, 56쪽.

8. 변순용 외, 『윤리와 사상』, 천재교과서, 2018, 82쪽.

서구 열강의 침략에 대하여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주장하기도 하였다.<sup>9</sup>

위의 인용문들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문제점은 최제우의 '시천주', 최시형(崔時亨, 1827~1898)의 '사인여천', 손병희(孫秉熙, 1861~1922)의 '인내천' 등이 모두 유사한 것처럼 기술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설명도 매우 소략하여 각각의 용어들이 지니는 사상적 발전 과정에서의 상징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sup>10</sup> 더 큰 문제점은 인용문 ②에서 발견되는데, 먼저 동학을 대표하는 시천주가 생략된 채 인내천이 가장 먼저 등장하였으며, 오히려 이것이 최제우가 한울에게 들었다는 오심즉여심과 최시형의 사인여천으로 심화되었다고 거꾸로 기술하였다. 또한 '지기'나 '성·경·신' 등 다른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는 수록되지 않은 용어들이 등장함으로써, 동일 과목의 교과서임에도 내용이 상당히 비균질적이라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sup>11</sup> 이 같은 부분들을 보완하려면, 학교 도덕교육에서 동학의 어떤 부분을 수용할 수 있고 또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다음의 순서로 전개된다. 우선 최제우가 제창한 시천주(侍天主)가 『2015 도덕과 교육과정』에 기술된 도덕교육의 '목표'에 대해 어떠한 시사점을 제시하는지 살펴본다(제II장). 다음으로 최제우 사상의 특이점 중 하나인 불연기연(不然其然)의 사유가 도덕교육의 내용구성 원리인 '가치관계 확장법'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제III장). 마지막으로 동학사상을 도덕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된 후속 과제의 '방향'을 한두 가지 제언하면서 연구를 마친다(제IV장).

9. 황인표 외, 『윤리와 사상』, 교학사, 2018, 87쪽.

10. 본문에서 인용하지 않은, 정창우 외, 『윤리와 사상』, 미래엔, 2018, 89쪽; 류지한 외, 『윤리와 사상』, 비상교육, 2018, 85쪽; 박찬구 외, 『윤리와 사상』, 씨마스, 2018, 89쪽 등에서도 유사한 성격의 문제가 나타난다.

11. 지기나 성·경·신과 같은 용어들이 특정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만 수록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기'가 무엇인지, 동학의 '성·경·신'이 유교의 그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의 설명이 전혀 없는 까닭에, 학생들이 동학을 이해하는 데 오히려 어려움을 제공한다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

## II. 시천주와 ‘도덕교육의 목표’

### 1. ‘시천주(侍天主)’ 해석

1860년[庚申] 4월에 이루어진 종교 체험을 통해 최제우는 한울로부터 ‘나의 마음이 곧 너의 마음[吾心卽汝心]’이라는 심법(心法)을 받는다. 이처럼 최제우는 한울로부터 받은 심법을 근간으로 한울이라는 존재가 특정한 초월적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 두루 퍼져 있음과 동시에 나 자신이 모시고 있음을 자각하게 된다.<sup>12</sup> 이 자각이 ‘시천주’라는 용어로 압축되면서 동학사상의 요체가 되는 것이다.

최제우는 언급한 종교 체험에서 한울로부터 두 가지를 받는데, 하나는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 구제하는 ‘영부(靈符)’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 사용하는 ‘주문(呪文)’이다. 시천주라는 용어는 두 가지 중 후자의 주문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주문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至氣今至 願爲大降 侍天主 造化定 永世不忘 萬事知)’라는 전체 21글자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지극한 기운이 지금 이르러 크게 내리기를 원한다.’라고 풀이되는 전반부 8글자는 강령주문(降靈呪文)으로서, 한울의 다른 표현인 지극한 기운(至氣)에 접합을 간청하는 것이다. 그리고 ‘천주를 모시니 조화로 정해지고, 언제나 잊지 않으니 만사를 다 알게 된다.’라고 풀이되는 후반부 13글자는 본주문(本呪文)으로서, 동학이 지향하는 인간-한울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즉, 주체로서의 내가 한울을 적극적으로 모시면, 무위이화(無爲而化)로 조화를 나타내는 한울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으며, 이 과정을 거쳐 중국에는 ‘내가 다름 아닌 한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sup>13</sup> 이렇게 보면, 시천주는 고귀한 존재로서의 자신을 자각하는 출발점이 된다. 이는 최제우가 『동경대전』의 「논학문(論學文)에서 해설하고 있는 본주문에 대한 글자별 풀이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12. 윤석산·홍성엽, 『경전으로 본 세계종교 천도교』, 전통문화연구회, 2016, 37~38쪽.

13. 김용휘, 앞의 책, 2012b, 98, 145쪽; 오문환, 「‘시천주’ 주문을 통해서 본 수운의 인간관」, 예문동양사상연구원·오문환 편저, 『수운 최제우』, 예문서원, 2005, 131~136쪽.

'시(侍)'는 안으로는 신령(神靈)이 있고 밖으로는 기화(氣化)가 있어서 세상의 사람들이 각기 옮기지 못할 것을 아는 것이고, '주(主)'는 높여 부르는 것으로 부모와도 같이 섬기는 것이다. '造化(造化)'는 특별히 힘이 없어도 저절로 되는 것이고, '정(定)'은 그 덕에 합하여 그 마음을 정하는 것이다. '영세(永世)'는 사람의 일생이고, '불망(不忘)'은 (한울을) 항상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사(萬事)'는 수의 많음이고, '지(知)'는 그 도(道)를 알고 그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다(밑줄 치리는 논자가 함).<sup>14</sup>

그런데 위의 인용문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시'를 풀이함에 있어 “안으로는 신령이 있고 밖으로는 기화가 있어서 세상의 사람들이 각기 옮기지 못할 것을 아는 것”이라고 한 대목이다. 이 말은 모심에 있어 안과 밖의 구별이 있다는 뜻인가? 만일 안팎의 구별이 있다면, 나와 한울은 별개의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우려와 관련해, 제2대 교조인 최시형은 “안으로 신령이 있다는 것은 세상에 태어날 때 갓난아기의 마음이고, 밖으로 기화가 있다는 것은 임신할(胞胎) 때 이치와 기운이 바탕에 응해 체(體)를 이룬 것이다.”<sup>15</sup>라고 주석함으로써, '내유신령(內有神靈)', '외유기화(外有氣化)'가 신령과 기화의 전적인 구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이것을 보다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갓난아기의 마음으로 설명된 '신령'은 한울의 마음이자 나의 본성이다. 그리고 임신할 때 이치와 기운이 바탕에 응하여 체를 이룬다고 설명된 '기화'는 신령이 우주에 편만(遍滿)한 한울과 융화 일체되는 과정을 신비스럽게 묘사한 것이다. 결국 신령은 기화를 통해 활동하며 또 기화로 이룩되는 것이 신령의 활동이기에, '내가 단순한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 우주 전체와 같은 기운으로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자신의 삶 속에서 번치 말고 꿋꿋이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이 최제우가 '시'자를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참뜻이라고 할 수 있다.<sup>16</sup>

14. 『東經大全』「論學文」: 侍者, 內有神靈, 外有氣化, 一世之人, 各知不移者也, 主者, 稱其尊而與父母同事者也. 造化者, 無爲而化也, 定者, 合其德定其心也, 永世者, 人之平生也, 不忘者, 存想之意也, 萬事者, 數之多也, 知者, 知其道而受其知也.

15. 『海月神師法說』「靈符呪文」: 內有神靈者, 落地初赤子之心也, 外有氣化者, 胞胎時, 理氣應質而成體也.

16. 윤석산, 『동학교조 수운 최제우』, 모시는 사람들, 2019, 217~220쪽.

하지만 이렇게 본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한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한울의 개념 규정 여하에 따라 시천주가 가지는 도덕교육적 시사점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다. 한편으로 최제우가 경험했다는 종교 체험이나 『도원기서(道源記書)』에 수록되어 있는 그의 이적(異蹟) 및 상제(上帝, 한울)와의 교감 등을 고려한다면,<sup>17</sup> 한울은 유일한 인격신처럼 보인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던 옛날부터 지금까지 봄, 가을이 서로 바꾸어 대신하는 것과 사계절(四時)이 성하거나 쇠퇴하는 것은 바뀌는 일이 없었으니, 이 또한 천주 조화의 자취가 천하에 환하기 때문이다.”<sup>18</sup> 라거나, “한울은 선과 악을 가리지 않는다.”<sup>19</sup>라는 등의 언급은 한울에 대한 상이한 해석의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울을 유일적이라거나 인격적이라고 보는 관점을 지양하고, 좁게는 지구의 생명체계요 넓게는 우주의 질서체계가 곧 한울이라는 관점을 선택할 것이다. 여기에 경우에 따라 유일성이나 인격성이 부여된 것이 최제우가 경험하고 동학의 경전에 묘사된 한울이라는 것이다.<sup>20</sup> 이것은 또한 나와 한울이 본래는 둘인데 나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시중 하나라는 의미이기도 하다.<sup>21</sup> 한울을 이처럼 해석하는 것은, 학교 도덕교육의 입장에서

17. 동학의 역사를 기술한 작자 미상의 서적인 『도원기서』에는, 빨래하던 여인들이 최제우에게서 상사로 운 기운을 느껴 그를 바라본 일화나, 최제우가 한울과 화답하면서 화결시(和訣詩)를 남긴 경향 등이 남아 있다(윤석산 역주, 『도원기서』, 모시는 사람들, 2012, 36~42쪽).

18. 『東經大全』 「布德門」: 盖自上古以來, 春秋迭代, 四時盛衰, 不遷不易, 是亦天主造化之迹, 昭然于天下也.

19. 『東經大全』 「論學文」: 曰, 不擇善惡也.

20. 표영삼, 『수운의 삶과 생각 동학 1』, 통나무, 2004, 120쪽.

21. 물론 본 연구와는 다른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가령 성해영(『수운 최제우의 종교 체험과 신비주의』,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8, 178~180쪽)은 동학사상이 여러 차원에서 등장하고 있는 사상 내이원적 관계에 대해 매우 예민한 감수성을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이원적 관계들이 궁극적으로는 일원성의 역설적인 표현이자 근원적으로는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인격적인 상제를 정성으로 공경하고 모시라는 말은, 나와 상제라는 존재의 이원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극한 기운이 지금 이르러 크게 내리기를 원한다.’라는 8글자의 강령주문에 나타난 청원처럼, 한울이 내려와 오심즉여심을 체험하게 되면 나와 상제는 동일한 그 무엇으로 변모한다는 것이다. 매우 설득력 있는 설명이지만, 교육의 실체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이와 같은 방식은 채택하기가 어렵다. 과연 이 내용을 동학을 가르치는 교사 또는 배우는 학생들이 이해하거나 체험할 수 있을까? 이러한 까닭에 본 연구에서는 한울을 지구의 생명체계 혹은 우주의 질서체계로 해석해 나와 한울의 일원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도덕교육적 시사점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동학사상을 바라봄으로써 관련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본 연구의 방법론에 부합하기도 하지만, 나아가 이 사상의 현대성을 보다 합리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되기도 한다.<sup>22</sup>

정리하면, '한울'은 최제우가 만물 중에 가장 신령한 존재라고 규정했던 인간,<sup>23</sup> 바로 이 인간이 지니는 수렴적 측면[神靈]과 발산적 측면[氣化]을 모두 함의하는 개념인 것이다. 이것은 인간을 도덕적 주체로 확립하는 데 기여하며, 주체의 실천 영역을 영적인(spiritual) 부분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바탕이 된다. 이러한 한울과 나의 관계를 이원적인 방식으로 파악할 경우(나/한울), 시천주는 결국 한울의 모심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반면 일원적인 방식으로 파악할 경우(나-한울), 시천주는 도덕적 주체로서의 인간을 모심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두 가지의 방식 중 본 연구는 후자로 나와 한울의 관계를 설정하였다. 그렇다면 이렇게 규정된 시천주는 '도덕교육의 목표'라는 측면에서 어떤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이하에서는 이 물음에 대한 개략적인 답을 논의할 것이다.

## 2. 시천주의 도덕교육적 시사점

현재 학교 도덕교육에서 지향하는 목표는,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인성의 기본 요소로 채택한 성실·배려·정의·책임의 4가지 '핵심 가치'들을 내면화하고, 여기에 기초해 도덕적 탐구·윤리적 성찰·실천으로 구성된 '도덕함'의 능력을 함양

22. 동학사상의 종교성을 부각시키는 것도 이 사상을 해석하고 이해, 활용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다만 종교에는 훌륭한 순간들도 있으나, ㉓ 기존 체제의 합리화, ㉔ 특정 종파에 대한 편파성·교조성·경직성, ㉕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배타성이나 불관용성의 역기능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윤영돈, 『도덕교육에서 도덕신학의 정초와 종교 관련 내용의 집필 방향』, 『도덕윤리과교육학회』, 제25호,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07, 86~87쪽). 이런 까닭에, 그리스도교와 불교 및 동학을 비롯한 여러 근대 종교 사상들이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지만, 종교성보다는 등장 배경이나 사상의 변천, 학문성 등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학사상에 내재된 도덕교육적 시사점들을 도출하고 교수학습과 관련된 활용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 사상이 가진 종교성은 가급적 배제하는 방향을 취하였다. 이는 특정 사상(학파)의 입장에서 도덕교육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도덕교육의 입장에서 특정 사상(학파)을 바라보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는 차별되는 지점이다.

23. 『東經大全』, 『論學文』, 陰陽相均, 雖百千萬物, 化出於其中, 獨惟人, 最靈者也.; 『용담유사』, 『안심가』; ○ 티져 신행 초목군심 스 신행지천 안일년 ㄹ ○ 후물며 만물지간 유인이 최령일네

하는 것이다.<sup>24</sup>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기 존중 및 관리 능력을 필두로 하는 6가지 ‘도덕과 역량’ 및 도덕교육의 내용구성 원리로 ‘가치관계 확장법’을 설정하였다.<sup>25</sup> 이 같은 도덕교육의 목표와 관련 내용들에 대해 동학사상의 시천주가 제시하는 첫 번째 시사점은, **도덕과 역량 혹은 우리가 맺는 가치관계의 시작이 바로 ‘나’라는 사실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2015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도덕과 역량의 첫째 요소로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토대 위에서 자주적인 삶을 살고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조절하며 이겨낼 수 있는” 자기 존중 및 관리 능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가치관계 확장법’의 제I영역으로 “자신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진정성을 추구하는 성실을 내면화”하는 자신과의 관계 영역을 언급하고 있다.<sup>26</sup> 이러한 자기 존중 및 관리 능력, 자신과의 관계 영역으로부터 여타의 도덕과 역량이나 가치관계 영역으로 범위가 점차 확장되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범위의 확장에 앞서 먼저 해소해야 할 의문은, **‘우리는 왜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진정성을 추구해야 하는가?’**라는 것이다. 이 의문에 대해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아무런 단서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런데 시천주라는 창을 통해 본다면, 나는 내 안에 한울을 모시고 있는 도덕적이고 실천적이며 능동적인 주체이다. 동학사상에서는 이 점을 전적으로 ‘신뢰[信]’해야 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한울의) 도를 이루고 (한울의) 덕을 세우는 것은, 정성에 있으며 사람에게 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떠도는 말을 듣고 수행하며, 또 많은 이들이 떠도는 주문을 듣고 암송하니, 어찌 잘못이 아니며 감히 민망한 일이 아니하겠는가. 안타까운 나(최제우)의 생각이 간절하지 않은 날이 없다. 아름다우며 성령스러운 덕을 혹 그르치게 될까 두렵다. (중략) 대저 이 도는 마음으로 믿되 정성을 다해 하는 것이다. ‘믿을 신(信)’이라는 글자를 풀어 보면, ‘사람[人]’과 ‘말[言]’이다. 말 중에는 옳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옳은 것을

24. 교육부, 앞의 책, 4쪽.

25. 다른 5개 도덕과 역량의 명칭은, ‘도덕적 사고 능력’, ‘도덕적 대인 관계 능력’, ‘도덕적 정서 능력’, ‘도덕적 공동체 의식’, ‘윤리적 성찰 및 실천 성향’ 등이다. 이 ‘가치관계 확장법’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룰 예정이다.

26. 교육부, 앞의 책, 3쪽.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물리치되 거듭거듭 생각하여 마음을 정하라. 마음을 정한 이후에는 다른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하여 수행하면 마침내 정성됨을 이룰 것이니, 정성과 믿음이라는 것이 도를 이름에서 멀지 않은 것이다.<sup>27</sup>

위의 인용문에 나타난 것처럼, 동학사상에서 가리키는 신뢰란 수행의 전제요 시천주로 압축되는 동학의 가르침을 믿는 것으로, 요체는 한울로 표상된 도덕적 주체로서의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신뢰로 다져지지 못한 사람이 타인을 자신과 동등한 도덕적 주체로 대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자기 신뢰를 경험하고 형성하도록 하는 것은 도덕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목표이자 과제인데, 그간 이에 대한 중요성이나 당위성만 강조해 왔을 뿐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노력은 부족하였다.<sup>28</sup> 바로 이 지점에서 동학사상의 시천주는 훌륭한 전통적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어서 도덕교육의 목표라는 측면에서 동학사상의 시천주가 제시하는 두 번째 시사점은, 시천주가 서두에서 밝혔던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개인이 시민 사회와 국가, 지구 공동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sup>29</sup>에 대해 직관과 체험의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실제 『2015 도덕과 교육과정』에는, 인류애나 세계 시민으로서의 도덕적 과제, 지구촌 평화, 인간과 자연의 올바른 관계 등에 대한 내용이 곳곳에 등장한다.<sup>30</sup>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교실에서 교과서를 통해 학습하는 학생들에게 있어, 이 내용은 머리로는 이해된다 고 할지라도 직관적이고 체험적으로는 잘 다가오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27. 『東經大全』「修德門」: 道成德立, 在誠在人, 或聞流言而修之, 或聞流說而誦焉, 豈不非哉, 敢不惘然. 憧憧我思, 靡日不切. 彬彬聖德, 或恐有誤. … 大抵此道, 心信爲誠, 以信爲幻(誠), 人而言之, 言之其中, 曰可曰否, 取可退否, 再思心定. 定之後言, 不信曰信. 如斯修之, 乃成其誠, 誠與信兮, 其則不違.

28. 관련 연구가 전무한 것은 아니다. 일례로 장승희(『전환기의 미래세대를 위한 동양윤리와 도덕교육』, 제주대학교 출판부, 2017, 84~102쪽)는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불신 현상에 대해 '신뢰 생태계'의 작동이 필요한 시점임을 지적하면서, 『논어(論語)』와 『대학(大學)』, 『중용(中庸)』 등을 분석해 신(信)이 곧 성(誠)임을 보여주고 있다. 즉, 신뢰의 기본은 성선(性善)에 대한 지향이기에, 자신에게 성실히 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신뢰 생태계 구축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자기 신뢰와 관련해 도덕교육적 시사점을 밝힌 훌륭한 연구 성과라고 판단되나, 본 연구와는 논의의 대상이나 방법상에서 차이가 있다.

29. 교육부, 앞의 책, 5쪽.

30. 위의 책, 14, 21, 23, 43, 45, 59쪽.

데 여기에서 시천주의 발산적 측면을 드러내는 ‘동귀일체(同歸一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용담유사』에는 이 용어가 세 차례 등장하는데, 다음과 같다.

- ① 너 역시 사람이니 무엇을 알겠으며, 억조창생(億兆蒼生)한 많은 사람 동귀일체하는 줄을 사십 평생 살았어도 네 어찌 알겠느냐?<sup>31</sup>
- ② 시운을 말하자면 한 번 성하면 한 번 쇠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쇠운(衰運)이 지극하면 성운(盛運)이 오겠지만, 현숙한 모든 군자 동귀일체 하였던가?<sup>32</sup>
- ③ 그러나 한울님은 지극히 공정하고 사사로운 없는 마음으로 선악을 가리지 않으시니, 각박한 이 세상을 동귀일체하려 하면 어찌해야 될 것인가.<sup>33</sup>

첫째 인용문은 한울이 최제우에게 말하는 형식이고, 나머지 인용문들은 동귀일체를 파악한 최제우가 대중과 문도들에게 말하는 형식이다. 직역하면 ‘하나로 돌아가 일체를 이룬다.’라는 의미의 동귀일체는 앞서 한 차례 언급했던 분별 지향적 이기심인 ‘각자위심’의 반대말로, 나-한울의 관점이 비단 나에게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확장된 것이다. 다시 말해, 동귀일체는 나라는 ‘개체’를 뛰어넘어 ‘우리’라는 공동의 장(場)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인식하며 체험하는 것이다.<sup>34</sup> 그런데 여기서 가리키는 ‘우리’란 이미 한울 개념에 내포된 지구의 생명체계와 우주의 질서체계까지 반영한다. 요컨대 동귀일체는 나(사람)-한울, 그리고 모든 존재가 하나임을 직관하고 체험함으로써, 다시 이진리로 돌아가 만물이 상호 의존하면서 하나로 통합될 수 있음을 용어 자체에서 드러내는 것이다.<sup>35</sup> 이렇게 보면, 동귀일체로 달성된 세상은 동학사상에서

31. 『용담유사』 「교훈가」: 너도 역시 스님이라 ○ 무어슬 알아스며 억조창생 마는 스님 ○ 동귀일체 하는 줄을 사십 평생 아라씨나

32. 『용담유사』 「권학가」: ○ 시운을 의논히도 일성일쇠 안일년가 ○ 쇠운이 지극하면 성운이 오지마는 ○ 현숙한 모든 군자 동귀일체 하였던가

33. 『용담유사』 「도덕가」: 그러는 흥닐님은 ○ 지공무스혹신 마음 불턱선악 하시느니 ○ 효박한 이 세상을 동귀일테 하단 말가

34. 윤석산, 『용담유사 연구』, 모시는 사람들, 2006, 184쪽.

35. 장열이, 앞의 글, 2007b, 220쪽.; 주의해야 할 점은 동귀일체에 내재된 정치적 해석의 가능성이다. 이러한 측면은 일찍이 해방 시기에 활동했던 천도교 기반 정치세력인 청우당(靑友黨)에 의해서도 주목 받았는데, 김병제(金秉濟, 1894~?)가 대표 집필하여 1947년에 발간된 『천도교의 정치이념』에서는 동귀일체의 철리적(哲學的) 의의에 대해 “동귀일체의 원리에서는 인간사회를 한 개의 인체와 같이 본다. 그리하여 육체 전체는 모든 기관을 꾸준히 조절하여 세포의 균형적 발육을 도모하고, 세포 각개는 각자 본능을 완전히 발휘하여 전체의 계속적 건전을 도모함과 같이, 인간사회도 이 원리에 맞도록 조직하여

지향하는 ‘후천(後天)’으로서, 다툼과 분열, 부조리가 없는 세상이다. 최시형의 다음과 같은 표현은 시천주를 통해 동귀일체의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보여준다.

몸에 맑고 밝음(淸明)이 있으면 그 아는 것이 신(神)과 같으니, 몸에 있는 맑고 밝음의 근본 마음은 곧 도를 지극히 함에 진력하는 데 있다. 일용행사가 도(道) 아닌 것이 없다. 한 사람이 선하게 됨에 천하가 선하게 되고, 한 사람이 화(和)하게 됨에 일가가 화하게 되며, 일가가 화하게 됨에 일국이 화하게 되고, 일국이 화하게 됨에 천하가 동일하게 화하게 되니, 비가 내리듯이 하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sup>36</sup>

이상으로 본 장에서는, 동학사상의 요체인 시천주에 대해 ‘나-한울’의 일원적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도덕적 주체로서의 인간을 모시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다음, 도덕교육의 목표라는 측면에서 관련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 시사점의 첫 번째는 도덕과 역량 내지는 우리가 맺는 가치관계의 시작이 바로 ‘나’라는 사실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시천주가 제공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개인이 시민 사회, 국가, 지구 등과 같은 대상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직관적이고 체험적인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제 이어지는 장에서는 최제우 사상의 특이점 중 하나인 ‘불연기연’이 학교 도덕교육의 내용구성 원리인 ‘가치관계 확장법’에 대해 어떤 시사점을 드러내는지와 관련하여, 특히 마지막 영역에 해당하는 ‘자연·초월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고자 한다.

사회와 개성의 쌍진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김병제·이돈화 외, 『천도교의 정치이념』, 모시는 사람들, 2015, 23쪽)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대한민국이 처한 당시의 상황, 즉 국내적으로는 해방을 맞이했고, 국외적으로는 미·소가 냉전하면서 자국의 영향을 키우려던 배경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에, 나름의 시대적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동귀일체를 세포(개인)-인체(사회)와 같은 형태로 보지 않고, 적용 가능성 역시 도덕교육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석의 차이를 지닌다. 오히려 논자는 최제우의 동귀일체는 한울과 사람을 공경하는 것을 넘어 사물까지 공경하는 최시형의 ‘삼경(三敬, 敬天·敬人·敬物)’ 사상과 연결된다고 본다는 점에서, 정치적 해석보다는 동귀일체의 통합적 성격에 집중하였다.

36. 『海月神師法說』「待人接物」: 淸明在躬其知如神, 淸明在躬之本心, 卽道至而盡矣. 日用行事, 莫非道也. 一人善之天下善之, 一人和之一家和之, 一家和之一國和之, 一國和之天下同和矣, 沛然孰能御之.

### Ⅲ. 불연기연과 ‘가치관계 확장법’

#### 1. ‘불연기연(不然其然)’ 해석

직역하면 ‘그렇지 아니함’이라는 불연(不然)과 ‘그러함’이라는 기연(其然)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의 선행 연구들이 있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최민자는 최제우가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분명히 인지할 수 없는 세상일에 대해서는 불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사물의 근본 이치와 관련된 ‘초논리·초이성·직관의 영역’이고, 상식적인 추론 범위 내의 사실에 대해서는 기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사물의 현상적 측면과 관련된 ‘감각적·지각적·경험적 판단의 영역’이라고 설명하였다.<sup>37</sup> 그리고 최천식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확신할 수 없는 것이 불연이라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 기연으로, 리(理)나 신비를 강조한 주자학이나 기독교·불교·도교 등이 모두 불연을 앞세우는 데 반해 최제우는 기연을 힘써 말함으로써 지식과 도덕성의 주체를 엘리트 계층인 사대로부터 민중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보았다.<sup>38</sup> 반면 오구라 기조(小倉紀藏)는 기연이야말로 주자학적 리에 의해 의미와 가치가 부여된 자연·도덕의 세계로 당시 조선인들에게 자명한 세계였다면, 최제우는 불연의 세계까지 언급하여 기연을 향한 매몰을 넘어 개벽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것이야말로 최제우가 진정으로 말하고 싶었던 바라고 해석하였다.<sup>39</sup>

이 같이 때로는 상이한 방식으로 풀이되는 불연과 기연에 대해 최제우는 직접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천고의 만물이여. 각자 완성됨이 있고 각자 형상이 있다. 보는 바로써 그것을 논한다면, 그러함이요 그러할 것 같다. 근원에서 헤아려본다면, 그 멀기가 매우 먼데 이 또한 아득한 일이요 추측하기가 어려운 말이다. 내가 나를 생각하면 부모가 여기에 있고, 뒤로 후세를 생각하면 자손들은 (나로부터 하여) 저기에 있다. 오는 세상과 견주어보면 이치가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보이는데, 지나간 세상을 탐구해보면 사람이 사람

37. 최민자, 「수운과 원효의 존재론적 통일사상」, 예문동양사상연구원·오문환 편저, 『수운 최제우』, 예문서원, 2005, 267쪽.

38. 최천식, 「최제우가 제시하는 유학 극복의 논리」, 『태동고전연구』 제38집,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17, 11~16쪽.

39. 小倉紀藏, 『朝鮮思想全史』, 筑摩書房, 2017, 260쪽.

으로 된 점에 있어 의혹이 잘 풀리지 않는다. 아아! 이와 같이 미루어 헤아려 봄이여. 그리함(其然)에 말미암아 보면 그리함이 그러한 것 같고, 그렇지 아니함(不然)을 탐구하여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렇지 아니하다. (중략) 이런 까닭에 꼭 그렇다고 하기 어려운 것은 '불연'이라고 하고, 단언하기 쉬운 것은 '기연'이라고 한다. 그 먼 것을 궁구하는 데서 견주어 보면 불연이고 불연이며 또 불연의 일이지만, 조물자(한울)에 부쳐 생각해 보면 기연이고 기연이며 또 기연의 이치이다.<sup>40</sup>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불연'이란 근본적이고 원인적인 것이며, '기연'이란 경험적이고 현상적인 것이다. 최제우는 이러한 불연의 예로 삼황(三皇) 중 하나인 천황씨(天皇氏)를 꼽으면서, 그 이전의 사람이나 그에게 왕위를 물려준 선왕(先王)에 대한 기록도 없는데 어떻게 최초의 사람, 최초의 임금인 되었는가를 묻는다. 그리고 기연의 예로는 세상에 부모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들면서, 나의 부모는 조부모가, 조부모는 고조부모가 있었기에 그 결과로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임을 언급한다.<sup>41</sup>

그렇다면 근본적·원인적 성격의 '불연'과 경험적·현상적 성격의 '기연'은 구별되는 것인가? 이 물음과 관련해 최제우는 『용담유사』의 마지막에서, “이러 저러한 말을 모두 다 하자니 말도 많고 글도 많아 약간 기록한 것이 이와 같은 것들이네. 이 글 보고 저 글 보고 무궁한 한울의 이치 불연기연 살펴내어 부(賦)와 흥(興)을 비해 보면, 글도 역시 끝이 없고 말도 역시 끝이 없네. 무궁히 살펴내어 무궁히 알았으면 무궁한 이 울 속에 무궁한 내 아닌가.”<sup>42</sup>라고 말함으로써, 불연과 기연은 플라톤(Plato)이 주장했던 이데아(idea)/현상계(phenomenon)의 관계처럼 이항 대립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즉,

40. 『東經大全』「不然其然」: 千古之萬物兮, 各有成, 各有形. 所見以論之, 則其然而似然. 所自以度之, 則其遠而甚遠, 是亦杳然之事, 難測之言. 我思我, 則父母在茲, 後思後, 則子孫存彼. 來世而比之, 則理無異於我思我, 去世而尋之, 則或難分於人爲人. 噫, 如斯之付度兮, 由其然而看之, 則其然如其然, 探不然而思之, 則不然于不然. … 是故, 難必者, 不然, 易斷者, 其然. 比之於究其遠, 則不然不然, 又不然之事, 付之於造物者, 則其然其然, 又其然之理哉.

41. 『東經大全』「不然其然」: 太古兮, 天皇氏, 豈爲人豈爲王. 斯人之無根兮, 胡不曰不然也. 世間, 孰能無父母之人. 考其先, 則其然其然, 又其然之故也.

42. 『용담유사』「흥비가」: ○그 말 저 말 다 흐즈니 말도 만고 글도 만아 ○약간 약간 기록하니 여즈여즈 우여즈라 ○이 글 보고 저 글 보고 무궁할 그니치를 ○불연기연 살펴내야 부야 흥야 비히 보면 ○글도 역시 무궁하고 말도 역시 무궁이라 ○무궁이 살펴내야 무궁이 아라쓰면 ○무궁할 이 울 속의 무궁하니 아닌가

우리가 사는 세계는 알 수 있는 것(其然)이자, 동시에 알 수 없는 것(不然)이기도 하다는 것이다.<sup>43</sup>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런 불연기연의 논리가 세계를 ‘인식’하는 차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는 주체인 ‘존재’의 차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경험적이고 현상적인 삶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가 지구의 생명체계이자 우주의 질서체계로서의 ‘한울’과 다르지 않음을 불연기연으로 살펴내면, 한정되고 유한하게 보이던 내 삶을 더 깊이 있고 폭넓은 관점으로 새로이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sup>44</sup> 바로 이것이 최재우가 불연기연을 통해 주장하고 싶었던 핵심이자, 인용했던 『용담유사』의 끝 구절에 내재된 참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불연기연은 나-한울의 관계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시천주를 존재론적으로 정당화하는 과정이요, 이를 거쳐 나와 한울이 다르지 않다는 진리를 자각한 도덕적 주체가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론적 설명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상에서 살펴본 불연기연은 학교 도덕교육의 내용구성 원리로 기능하는 ‘가치관계 확장법’, 그 안에서도 특히 ‘자연·초월과의 관계(제Ⅳ영역)’에 어떤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까?

## 2. 불연기연의 도덕교육적 시사점

교육과정 개정이 ‘전면 개정’ 체제에서 ‘수시 개정’ 체제로 바뀐 『2007 도덕과 교육과정』을 기점으로 그 이전의 ‘생활영역 확대법’을 대체하게 된 ‘가치관계 확장법’의 요지는, “도덕적 주체인 ‘나’를 중심으로 점차 확장되고 고양되는 가치관계를 포섭하는”<sup>45</sup> 것이다.<sup>46</sup> 학계 및 많은 교사의 의견을 반영해서 만들어

43. 이한영, 「불연기연과 이천식천의 신학적 이해」, 『신학사상』 제186집, 한신대학교 신학사상연구소, 2019, 397쪽.

44. 조극훈, 「동학의 불연기연과 변증법」, 『동학연구』 제29집, 한국동학학회, 2010, 32~33쪽; 윤석산, 앞의 책, 2019, 245~246쪽.

45. 교육과학기술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Ⅱ-국어, 도덕, 사회』, 교육과학기술부, 2009, 177쪽.

46. ‘가치관계 확장법’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관련 단체들의 상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차우규 외, 『도덕과 교육과정 내용체계와 지도방법 개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를 참조할 수 있다. ‘가치관계 확장법’도 ㉔ 이전 생활영역 확대법과의 차이점이 모호하다는 점, ㉕ 가치관계의 영역별 구분이 작위적이



진 이후, 확장되는 '영역'들과 도덕적 주체로서의 '내'가 어떤 상관관계를 맺는 지 강조하는 방향으로 성격이 재규정되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 도덕적 주체인 내가 다른 영역들과 맺는 관계 속에서 요구되는 가치들을 학교 도덕교육의 내용으로 삼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하되(순방향), 그 영역들이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를 형성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강조함으로써(역방향), '자율적 도덕성'의 함양과 '도덕 사회화'의 영향 모두를 중시했다는 것이다.<sup>47</sup>

영역들의 명칭도 몇 번의 변화를 거쳐 현행 『2015 도덕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가치관계 확장법'은 자신과의 관계(제Ⅰ영역) → 타인과의 관계(제Ⅱ영역) → 사회·공동체와의 관계(제Ⅲ영역) → 자연·초월과의 관계(제Ⅳ영역)로 구성되어 있다.<sup>48</sup> 그런데 다른 영역들과는 달리 개념 규정도 모호하고, 영역으로서의 타당성 역시 의심받는 영역이 본 절에서 살펴보려는 제Ⅳ영역이다.<sup>49</sup> '가치관계 확장법'이 처음으로 소개된 『2007 도덕과 교육과정』의 해설서에는 다음과 같이 제Ⅳ영역을 언급하고 있다.

이 영역에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개인적인 또는 공동체적인 관계에서 빚어지는 도덕적 문제를 넘어서, 자연과 우주, 초월자 혹은 신, 미적 가치, 학문적 진리 등을 지향하는 인간의 심성과 활동을 도덕적 관점에서 검토해 본다.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과 인간을 구원하는 성스러움을 추구하는 종교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은 인간의 현실을 초극하려는 지향을 갖는다. 그리고 인간 삶의 터전이자 세계의 존재적 기반인 우주적 자연 또한 인간의 초월적 지향 작용에서 그 숭고한 위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인간의 자기 초월적 세계, 초월적 지향 작용은 얼핏 보아 도덕과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바로 이러한 형이상학적인 지평이 도덕적인 문제에서 보편적 척도를 탐색하고 구현하는 데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덕적 탐구의 초석

라는 점, © 영역과 해당 영역에 속하는 가치·덕목들의 배분이 맞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다양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진의남 외, 『교과 교육과정의 쟁점 및 개선 방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4, 80~81쪽).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가치관계 확장법'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은 생략한다.

47. 윤현진 외, 『도덕과 교육 내용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9, 106~107쪽; 오기성 외, 『2011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교육과학기술부, 2011, 86~87쪽.

48. 진면 개정 체제에서 활용되었던 '생활영역 확대법' 및 수시 개정 체제에서 활용 중인 '가치관계 확장법'의 영역별 명칭 변천사에 대해서는, 김민재, 「고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전통 가치의 수용 양상」,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8권 제15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8, 285~287쪽을 참조할 수 있다.

49. 진의남 외, 앞의 책, 82~83쪽.

이 된다고 할 수 있다.<sup>50</sup>

개인 생활에서 시작해 국가·민족 생활로 마무리되는 ‘생활영역 확대법’과 달리, ‘가치관계 확장법’에서는 제Ⅳ영역을 도입함으로써 도덕교육 내용의 범위를 확장하고 깊이는 심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의 의도와는 다르게, 위의 인용문에 나타난 초극·초월이라는 용어의 뜻이 불분명하고, 이로 인해 학교 도덕교육을 구성하는 특정 영역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로부터 초탈한 내용을 다루려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2015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되는데, 영역의 명칭은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에서 ‘자연·초월과의 관계’로 변경되었으며, 이 영역에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과적 책임과 삶의 의미 물음에 대한 존재적 책임을 포용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책임을 지향”<sup>51</sup>하고 있다고 안내한다. 비판적으로 보면, ㉠ 영역의 명칭 중 일부가 ‘초월적 존재’에서 ‘초월’로 바뀌면서 영역의 뜻이 한층 모호해졌고,<sup>52</sup> ㉡ ‘삶의 의미 물음에 대한 존재적 책임’이라는 말도 그리 정확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같은 모호함들에 대한 해석의 여지는 교육과정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동학의 ‘불연기연’ 사유가 지니는 도덕교육적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시사점은, ‘자연·초월과의 관계’ 영역의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함으로써 이 영역을 학교 도덕교육에서 가르쳐야 하는 타당성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미 『2007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만들어졌을 때부터 미학, 종교학, 사회철학, 과학철학 등 여러 학문 분야와 연결되어 있다고 평가받던 이 영역은 지금도 이런 기초를 유지하고 있어서, 현행 『2015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자연·초월과의 관계’ 영역의 요지는 ‘자연과 생명에 대한 외경심’ 및 ‘초월적 관점에서 인간과 사회에 대해 도덕적으로 성찰하는 태도’를 함양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영역의 주요 내용 요소로는, 생명 존중, 자연애, 아름다움에 대한

50. 교육과학기술부, 앞의 책, 194쪽.

51. 교육부, 앞의 책, 3~4쪽.

52. 사실 ‘자연·초월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연’이 아니라 ‘초월’이다. ‘자연’의 경우에는 교육의 대상을 규정할 수 있으나 ‘초월’은 대상 자체를 규정하기도 어렵거니와, 기존에 쓰이던 ‘초월적 존재’와 개정된 이후의 ‘초월’은 어떤 동이점이 있는지도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사랑, 자아 존중, 긍정적 태도, 윤리적 성찰, 자연관, 과학과 윤리, 삶의 소중함, 마음의 평화 등이 있다.<sup>53</sup>

하지만 거창하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기능 교육 중심의 '도구 교과'와는 달리 ㉠ 삶의 의미 물음에 대한 천착, ㉡ 인간으로서의 품격(人格)을 높이기 위한 노력, ㉢ 당위와 가치의 문제에 대한 고민 등이 도덕교육의 본질이자 성격임을 인정한다면,<sup>54</sup> 학생들로 하여금 '지금-여기' [기연]로 요약되는 현상에만 집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즉, 도덕교육에는 '그 너머' [불연]에 대한 성찰이 반드시 담겨야 하고, 이를 통해서야 비로소 '기연이 머금고 있는 불연'과 '불연이 드러난 기연'을 상호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쪽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데, 최제우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계한다.

기연에 말미암아 보면 기연이 기연 같고, 불연을 탐구하여 생각해보면 불연하고 불연하다. (중략) 대저 이와 같은즉, 불연은 알 수 없는 까닭에 그것을 말하지 않고, 기연은 알 수 있는 까닭에 기연에 의지한다. (하나) 이에 그 말단을 헤아리고 근본을 탐구해보니, 사물은 사물이 되고 이치는 이치가 되는 큰 사업이 대단히 멀구나.<sup>55</sup>

기연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하여 거기에만 의지하는 것도 문제지만, 불연을 알기 어렵다고 하여 내팽개치거나 혹은 불연하고 불연함으로 빠져드는 것도 문제이다. 중국에는 불연과 기연이 상통함(會通)을 자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인데, 학교 도덕교육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곧 '자연·초월과의 관계' 영역이 될 수 있다. 가령 인간의 몸을 해부하면 '신체의 구조와 기능' [기연]을 소상하게 밝힐 수는 있겠지만, 이것으로 인간을 온전히 이

53. 장승희, 「도덕과 내용체계에서 제4영역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분석」, 『윤리연구』 제80호, 한국윤리학회, 2011, 126쪽; 교육부, 앞의 책, 7~8, 15~16, 23~24, 74~75쪽.; 소개한 요소들이 '자연·초월과의 관계'에 정확히 부합하는 내용인지도 검토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곽영근, 「초등학교 도덕과 '자연·초월과의 관계' 영역의 가치·덕목에 대한 이해」, 『초등도덕교육』 제58집,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17, 315~316쪽).

54. 강두호, 『도덕교과교육의 논점들』, 교육과학사, 2017, 39~45쪽; 박병기·추병완, 『윤리학과 도덕교육 1』, 인간사랑, 2017, 75~82쪽; 정창우, 『도덕과 교육의 이론과 쟁점』, 울력, 2013, 22~23쪽.

55. 『東經大全』 「不然其然」: 由其然而看之, 則其然如其然, 探不然而思之, 則不然而不然. … 夫如是則不知不然故, 不曰不然, 乃知其然故, 乃恃其然者也. 於是, 而揣其未究其本, 則物爲物理爲理之大業, 幾違矣哉.

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마음과 그 마음이 바라보는 너머의 세계[불연]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sup>56</sup> 이렇게 불연기연이라는 우리 전통의 사유 방식은 도덕교육을 구성하는 '자연·초월과의 관계' 영역이 어떤 성격의 것이고 왜 가르쳐야만 하는지, 그 타당성을 설명하는 데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어서 도덕교육의 내용구성 원리에 대한 함의라는 측면에서 동학사상의 불연기연이 제시하는 두 번째 시사점은, 결국 자연·초월의 영역과 관계를 맺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 무엇도 아닌 '도덕적 주체로서의 자신'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도덕적 주체로서의 자신'이 성숙하는 과정에서 여타 영역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나, 그럼에도 가치관계의 확장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것은 '도덕적 주체로서의 자신'이다. 이 점은 최제우가 문도들에게 하는 다음의 당부에서 잘 나타난다.

내 마음의 쫄대[心柱]를 굳게 해야 이에 도(道)의 맛을 알게 되고, 일념이 여기에 있어야 모든 일이 뜻과 같이 된다. (중략) 마음은 본래 비어 있어 사물에 응해도 자취가 없다. 그 래도 마음을 닦아야 덕(德)을 알게 되고, 덕을 오직 밝히는 것은 도이다. 덕에 있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있지 공부에 있는 것이 아니며, 가까운 데 있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정성[誠]에 있지 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불연이고 기연이며, 먼 것 같지만 멀지 않다.<sup>57</sup>

불연기연의 사유에서 마음은 불연인가 기연인가? 매일같이 경험하는 현상이라는 의미에서는 기연이지만, 지구의 생명체계이자 우주의 질서체계로서의 한울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 곧 이 마음이라는 점에서는 불연이다. 그래서 위의 인용문에서도, "마음은 본래 비어 있어 사물에 응해도 자취가 없다."라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결국에는 도덕적 주체요 한울을 상징하는 이 마음을 굳게 하고 믿으며 정성스럽게 대할 때에야말로, '기연'의 불연적 측면과 '불연'의 기연적

56. 오문환, 『다시개벽의 심학』, 모시는 사람들, 2006, 143쪽.

57. 『東經大全』「歎道儒心急」: 固我心柱, 乃知道味, 一念在茲, 萬事如意. … 心兮本虛, 應物無迹. 心修來而知德, 德惟明而是道. 在德不在於人, 在信不在於工, 在近不在於遠, 在誠不在於求. 不然而其然, 似遠而非遠.

측면을 모두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축소된 소우주에 머물지 않고 그 자체로 생동하는 무궁한 대우주로서 활동한다.<sup>58</sup> 이는 도덕적 주체인 내가 관계를 맺는 영역이 그대로 '자연·초월'과 일치하는 상태이다.

이상으로 본 장에서는, 최제우 사상의 특이점인 불연기연에 대해 나-한울의 관계를 압축한 시천주를 존재론적으로 정당화하는 과정이요 나와 한울이 다르지 않다는 진리를 자각한 도덕적 주체가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론적 설명 방식이라고 규정한 다음, 학교 도덕교육의 내용구성 원리(가치관계 확장법)에 대한 함의라는 측면에서 관련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 시사점의 첫 번째는 '자연·초월과의 관계' 영역의 성격을 한층 분명하게 함으로써 이 영역을 학교 도덕교육에서 가르쳐야 하는 타당성을 제공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결국 자연·초월의 영역과 관계를 맺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도덕적 주체로서의 자신'이라는 사실을 여실하게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제 이어지는 장에서는 동학 사상을 현장 도덕 수업에서 활용하기 위한 거시적인 방안에 대해 한두 가지 제언을 하면서 연구를 맺을 것이다.

#### IV. 맺음말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수운 최제우가 창시한 동학사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학교 도덕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목적 아래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한울'을 유일적·인격적으로 정의(定義)하는 관점이 아닌, 지구의 생명체계이자 우주의 질서체계로 바라보는 관점을 선택하였다. 이를 전제로 '시천주'에 대해서는 '나-한울'의 일원적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도덕적 주체로서의 인간을 모시는 것이라고 규정한 다음, 도덕교육의 목표라는 측면에 비추어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 첫째는 시천주가 도덕과 역량 내지는 우리가 맺는 가치관계의 시작이 바로 '나'라는 사실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개인이 시민 사회, 국가, 지구 등과 같은 대상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58. 김지하, 『생명학 1』, 화남, 2008, 153쪽.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직관적이고 체험적인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불연기연'에 대해서는, 나-한울의 관계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시천주를 존재론적으로 정당화하는 과정이자 이를 거쳐 나와 한울이 다르지 않다는 진리를 자각한 도덕적 주체가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관한 인식론적 설명 방식이라고 규정한 다음, 도덕교육의 내용구성 원리, 즉 '가치관계 확장법'에 비추어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 첫째는 불연기연의 사유가 '가치관계 확장법'의 제Ⅳ영역에 해당하는 '자연·초월과의 관계' 영역의 성격을 한층 분명하게 함으로써 이 영역을 학교 도덕교육에서 가르쳐야 하는 타당성을 제공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자연·초월이라는 영역과 관계를 맺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다름 아닌 '도덕적 주체로서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는 것이다.

동학사상을 학교 도덕교육의 목표 내지는 내용구성의 원리와 연결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학술적 가치를 일정 이상은 찾을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이 같은 시도가 더 큰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동학사상을 현장의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등의 관점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성격의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한 한두 가지 제언을 하는 것으로 본 연구를 마친다.

우선 첫 번째는, 동학사상에 대한 도덕교육학계의 관심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가르쳐야 하고 배워야 한다는 교수학습에 대한 압박감을 '심리적 비중'이라고 표현할 때, 동학사상이 차지하는 교수학습의 심리적 비중은 이황(李滉, 1501~1570)이나 이이(李珥, 1536~1584), 정약용(丁若鏞, 1762~1836) 등의 그것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낮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논자는 도덕교육 전반에서 동학사상에 대해 크게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 단적인 예가 서두에서 잠시 밝혔던 바와 같이, 도덕교육학계에서 내놓은 동학사상 관련 연구물이 없지는 않으나 매우 적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동학사상을 학교 도덕교육의 내포·외연과 엮어 다양한 방식으로 조명한 연구가 꾸준히 나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수심정기(守心正氣) 혹은 성(誠)·경(敬)·신(信) 등 동학 사상에서 강조하는 수행법들을 도덕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목록하지 않은 과제이다. 왜냐하면 유일하고 인격적인 신을 상징하는 여타의 종교와는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동학사상 역시 종교의 외피를 두르고 있는 까닭이다.<sup>59</sup>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울은 지구의 생명체계요 우주의 질서체계로도 풀이가 가능하거니와, 이는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평가받는 생태학적(生態學的, ecological) 사유와도 통한다. 이렇게 보면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하는 수심정기의 상태란 “마음에 맺히고 억압받고 상처받은 것이 다 풀리고 정화되어 원만한 인격으로 변화된”<sup>60</sup> 모습으로, 이런 상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의 중핵 교과인 도덕교육의 지향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이상에서 제시한 과제들은 다른 지면을 통해 논의할 것을 약속드리며, 연구를 마친다.

59.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처음 읽는 한국 현대철학』, 동녘, 2016, 98~99쪽.

60. 김용휘, 앞의 책, 2012b, 92쪽.

## 참고문헌

- 『東經大全』.  
『용담유사』.  
『海月神師法說』.  
『道源記書』, 윤석산 (역주), 모시는 사람들, 2012.  
崔濟愚, 『동경대전』, 윤석산 (역주), 모시는 사람들, 2014.  
崔濟愚, 『용담유사』, 양윤석 (역주), 모시는 사람들, 2013.
- 강두호, 『도덕교과교육의 논점들』, 교육과학사, 2017.  
곽영근, 「초등학교 도덕과 ‘자연·초월과의 관계’ 영역의 가치·덕목에 대한 이해」, 『초등도덕교육』 제58집,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17, 313~334쪽.  
교육과학기술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II-국어, 도덕, 사회』, 교육과학기술부, 2009.  
교육부, 『2015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2015.  
김대훈, 「동학에 나타난 고유사상 연구」, 『윤리교육연구』 제37집, 한국윤리교육학회, 2015, 159~186쪽.  
김민재, 「고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전통 가치의 수용 양상」,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8권 제15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8, 281~303쪽.  
김병제·이돈화 외, 『천도교의 정치이념』, 모시는 사람들, 2015.  
김용휘, 『우리 학문으로서의 동학』, 책세상, 2012a.  
———, 『최제우의 철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2b.  
김지하, 『생명학 1』, 화남, 2008.  
류지한 외, 『윤리와 사상』, 비상교육, 2018.  
박병기·추병완, 『윤리학과 도덕교육 1』, 인간사랑, 2017.  
박찬구 외, 『윤리와 사상』, 씨마스, 2018.  
배문규,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서술된 동학윤리사상 검토」, 『윤리교육연구』 제31집, 한국윤리교육학회, 2013, 189~212쪽.  
변순용 외, 『윤리와 사상』, 천재교과서, 2018.  
성해영, 『수운 최제우의 종교 체험과 신비주의』,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8.



- 오기성 외, 『2011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교육과학기술부, 2011.
- 오문환, 「‘시천주’ 주문을 통해서 본 수운의 인간관」, 예문동양사상연구원·오문환 편저, 『수운 최제우』, 예문서원, 2005, 129~154쪽.
- \_\_\_\_\_, 『다시개벽의 심학』, 모시는 사람들, 2006.
- 윤석산, 『용담유사 연구』, 모시는 사람들, 2006.
- \_\_\_\_\_, 『동학교조 수운 최제우』, 모시는 사람들, 2019.
- \_\_\_\_\_, 홍성엽, 『정전으로 본 세계종교 천도교』, 전통문화연구회, 2016.
- 윤영돈, 「도덕교육에서 도덕신학의 정초와 종교 관련 내용의 집필 방향」, 『도덕윤리교육학회』, 제25호, 한국도덕윤리교육학회, 2007, 81~116쪽.
- 윤현진 외, 『도덕과 교육 내용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9.
- 이한영, 「불연기연과 이천식천의 신학적 이해」, 『신학사상』 제186집, 한신대학교 신학사상연구소, 2019, 398~422쪽.
- 장승희, 「도덕과 내용체계에서 제4영역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분석」, 『윤리연구』 제80호, 한국윤리학회, 2011, 105~135쪽.
- \_\_\_\_\_, 『전환기의 미래세대를 위한 동양윤리와 도덕교육』, 제주대학교 출판부, 2017.
- 장열이, 「동학 시천주 사상의 교육적 함의」, 『교육사상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교육사상학회, 2007a, 1~24쪽.
- \_\_\_\_\_, 「동학 ‘동귀일체’ 통합사상의 교육적 함의」, 『교육철학』 제32집, 한국교육철학회, 2007b, 217~244쪽.
- 전광수, 「도덕교육과 동학의 윤리관」, 『동학학보』 제47호, 동학학회, 2018, 39~65쪽.
- 정창우, 『도덕과 교육의 이론과 쟁점』, 울력, 2013.
- \_\_\_\_\_, 『윤리와 사상』, 미래엔, 2018.
- 정혜정, 「동학의 종교경험과 ‘마음 살핌’의 자기교육」, 『교육철학연구』 제34집, 한국교육철학학회, 2005, 139~155쪽.
- \_\_\_\_\_, 「민주 사회를 위한 시민교육과 한국적 인문학」, 『Oughtopia』 제32권 제1호,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7a, 73~100쪽.
- \_\_\_\_\_, 「뇌과학과 동학의 마음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55권, 한국종교교육학회, 2017b, 1~25쪽.
- 조극훈, 「동학의 불연기연과 변증법」, 『동학연구』 제29집, 한국동학학회, 2010, 19~36쪽.
- 진의남 외, 『교과 교육과정의 쟁점 및 개선 방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4.
- 차우규 외, 『도덕과 교육과정 내용체계와 지도방법 개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최민자, 「수운과 원효의 존재론적 통일사상」, 예문동양사상연구원·오문환 편저, 『수운 최제우』, 예문서원, 2005, 247~306쪽.

최천식, 「최제우가 제시하는 유학 극복의 논리」, 『태동고전연구』 제38집,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17, 57~83쪽.

표영삼, 『수운의 삶과 생각 동학 1』, 통나무, 2004.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처음 읽는 한국 현대철학』, 동녘, 2016.

한자경, 「각자위십에서 일원일십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68집,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6, 7~31쪽.

황인표 외, 『윤리와 사상』, 교학사, 2018.

小倉紀藏, 『朝鮮思想全史』, 筑摩書房, 2017.

## Abstract

### A Study on the Moral Educational Implications of ‘Si-cheon-ju’(侍天主) and ‘Bul-yeon-gi-yeon’(不然其然)

Kim, Minja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ssociate Profess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moral and educational implications of Dong-hak(東學)’s thought, which was founded by Suwoon(水雲) Choi, Jewoo(崔濟愚). First of all, in this study, we defined ‘Han-ul’(한울) as the Earth’s life system and the order system of the universe, and under the premise that ‘Si-cheon-ju’ is to serve humans as moral subject. Si-cheon-ju’s first moral educational implications provide a theoretical basis for the fact that the competence of moral education and the beginning of our value relationship are ‘T’. The second moral and educational implication provides intuitive and heuristic clues about how individuals should perceive and accept objects such as civil society, the state, the earth, etc. In this work, we then defined ‘Bul-yeon-gi-yeon’ as Si-cheon-ju’s existential justification process and an epistemic explanation of how moral subjects should look at the world. Bul-yeon-gi-yeon’s first moral implication provides the validity to be taught in school moral education by clarifying the characteristic of the ‘relationship with nature and transparency’ area of the ‘extending the value relationship’. The second implication illustrates the fact that it is ‘self as a moral subject’ that relates to and gives meaning to the area of ‘nature and transcendence’.

**Keywords:** Dong-hak(東學), Si-cheon-ju(侍天主), Bul-yeon-gi-yeon(不然其然), Moral Education, Extending the Value Relationship

논문 투고일 : 2021년 03월 19일  
심사 완료일 : 2021년 04월 09일  
게재 확정일 : 2021년 04월 13일